

‘하고 싶은 수행’ 전문가에게 묻다 ⑤

- 진언수행

‘진언(眞言)은 부처의 본심(本心)이다. 그 본마음을 내 마음으로 불러내는 것이 진언수행의 핵심이다.’ 수행자가 진언으로 ‘자심(自心)’을 통찰하면, 청정한 본래 마음을 스스로 확신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 면에서 진언은 ‘본래성불’을 강조하는 선수행의 원리와 닮았다. 그럼 진언수행의 원리는 무엇일까, 또 어떻게 수행하는 것일까? 7월 21일, 장용(54·서울 송파구 오륜동) 이성수(34·수원 매향포)씨가 혜정 정사(수원 유가심인당 주교)를 찾았다.



혜정 정사(사진 가운데)가 장용씨(왼쪽)와 이성수씨에게 진언수행의 결인(結印)부처와 중생이 하나임을 상징하는 손동작법을 지도하고 있다.

**#부처의 속마음에 가까이**  
진언수행 초심자, 이성수씨. 직접적인 질문부터 던졌다. “진언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이요. 경전이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곁집힌 것이라면, 진언은 그 가르침의 숨은 뜻을 짚은 말로 응축해 낸 거지요. 그래서 진언은 해석도 번역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진언의 종류도 능엄주, 준제진언, 광명진언 등 다양해요. 각각종의 경우에는 법신 비로자나불의 본심진언인 ‘옴나니 반메울’을 외고 있지요.” “그럼, 왜 진언을 외야 하나요?” “되풀이해보지요. 이 보살님, 수행이 될까요? 부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수행이겠지요.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떻게 갈까요? 부처님에게 공경과 찬탄을 표하는 절 수행, 부처님의 말씀을 읽는 독경, 앉아서 하는 참선 등 많지요. 그 중에 진언은 부처님의 속마음과 가장 가까워지려는 수행법이에요. 진언을 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부처임을 확인**  
이번에는 진언수행 7년차인 장용씨가 이어받았다. “다른 수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수행의 단계에는 3가지가 있어요. 부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단계, 부

처님처럼 되기 위한 단계, 내가 부처되기 위한 단계로 말할 수 있어요. 가령 사별, 절 등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찬탄을 표현하는 수행법들로 첫 단계에 속하며, 부처님의 속뜻과 말씀 내용을 알기 위한 간결한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진언수행은 이 중 ‘내가 부처되기 위한’ 단계에 속해요. 진언은 부처님이 과거 생으로부터 이미 말해놓은 진실한 마음을 통해 부처가 되려는 수행법이기 때문이죠.” “선수행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성불하는 방식이 달라요. 선수행은

10여년 진언수행 보급 앞장

■혜정 정사는

혜정 정사(사진)는 10년 전부터 밀교수행 관련 공개강좌를 불교방송, 불교TV에서 총 420여회 진행해오는 등 불교계에서는 진언수행 지도자로 유명하다. 또 5년 전에는 서울,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6개 지역을 돌며 ‘일반인들을 위한 밀교교리대법회’를 봉



행해 진언수행의 보급과 대중화에도 앞장섰다.

지난 1975년 진각종에 입문한 혜정 정사는 그간 교육원장, 종학연구실장, 교법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진언수행의 종학적 연구에 진력했으며, 현재는 수원 유가심인당에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나니갑 불> <밀교강좌> 등이 있다. (031)255-2585

■진언수행 포인트

‘임으로 외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관(觀)한다.’ 진언수행의 핵심 포인트

부처의 본마음 볼 때 업장소멸

이몸 그대로 성불

‘자신의 본성을 보고 성불한다’는 견성 성불(見性成佛)을 강조하고, 진언은 ‘이몸 그대로 성불한다’는 즉신성불(卽身成佛)을 중시해요.”

장씨의 질문은 계속된다. “다른 수행법과 달리 진언수행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수행법에는 우열이 없어요. 다만 사람의 근기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수행법이 다를 뿐이지요. 진언수행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 부처님의 마음과 직접 통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마음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찾는 것과 같기 때문이지요.”

들어요.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됨으로써 자신은 물론 타인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기꺼이 용서하게 되지요.”

매일 새벽 6시면 10분씩 진언을 외는 장씨가 공장 말을 받았다. “그럼, 진언수행의 핵심은 업장소멸이 되겠네요?” “맞아요. 진언수행에는 반드시 참회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자신을 알게 되면 잘못부터 알게 되죠. 참회할 일을 먼저 확인하게 돼요.”

#마음만 내면 언제 어디서나

질문은 자연스럽게 진언수행법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됐다. “진언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되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언수행은 수행자 자신의 마음과 약속이기 때문에 정진시간을 정해놓아야 해요. 시간은 보통 30분, 1시간, 3시간, 7시간 등으로 정하면 좋아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시간만 내면 됩니다. 불상이 있든 경전이 없든 상관없이 진언수행을 하겠다는 뜻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언수행을 ‘처처불공(處處佛供)’ 또는 ‘시시불공(時時佛供)’이라고도 하죠.”

글·사진/수원=김철우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8> 진짜 무서운 아줌마 선지식들

30~40년전 처음으로 삼천배 수행법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대단한 아줌마 보살님 말고는 감히 어느 누구도 도전해 볼 생각조차 못했다. 하지만 요즘은 삼천배 보살님도 보통이고 ‘만배 보살’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을 것이다. 어머니의 강한 힘은 물론 자식사랑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강한 어머니도 지나치게 ‘내 세기’에게만 집착하여 체면불구한 상대가 된다면 그 순간 남편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얼굴 두꺼운 ‘아줌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선어록에는 정말 무서운 아줌마들이 많이 등장한다. 어록에는 ‘노파’라고 되어있지만 조금 짧게 보이도록 아줌마로 바꾸었다. 물론 그건 그녀의 수행력이 만만찮아 남자들을 버겁게 하는 아줌마들이다.

덕산선감(782-865) 선사의 <금강경> 답변이 시원찮아 돈을 쥐뼉을 팔지 않고서 졸졸

른 방편이기도 했다.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서 강을 건너가고자 목판을 두드렸다. 선사는 움막에서 나와 춤을 추고 노를 흔들면서 나왔다. 난세이지만 그래도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자기표현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때 추상같은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되지도 않는 춤은 그만두고 묻는 말에 나 대답하십시오. 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물론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본래소식을 묻는 질문이다. 어렵소! 이게 뭐야, 뭘 알고서 묻는 거야. 무시하듯 가볍게 성의없이 형식적으로 노로써 뱃전을 두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아줌마가 보니 그런



아니었다. 소문 듣고서 뭐 좀 아는 줄 알고 왔더니 맹탕이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순간 암두 선사는 긴장했다. 다시 그 아줌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일곱 아이를 낳았는데 여섯 명을 이 미물 속에다가 던져

“이 아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묻고는 암두 선사가 답변 못하자 자식 물에 던져

굶긴후 인연 있는 선지식인 용담승신(782-865) 선사까지 지정해주고서 찾아가게 하는 딱정수 아줌마가 가장 유명하다.

토굴에서 수십년 동안 남자를 시봉하다가 어느 날 그의 공부경지가 별달리 없음을 확인한 후 인정사정없이 내쫓고 암자에 불을 지른 열혈아줌마도 그 못지않다. 가는 곳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한소식한 아줌마들 때문에 선종 승려들은 공부할 하지 않고는 만행은 물론 탁발조차 마음놓고 나갈 수 없다. 언제 감격(?)을 만나 얼굴 붉히는 무안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뭐니뭐니 해도 제일 무서운 아줌마는 암두전할(828-887) 선사가 만난 여자일 것이다. 그 때 암두 선사는 회창법당을 피해 속북처럼으로 한양(漢陽)에서 뱃사공노릇을 하고 있었다. 강안에서 피안으로 모든 사람을 건네주는 것을 수행으로 삼고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 강 양편에 세워놓은 나무판자를 두드리는 것이 뱃사공을 부르는 신호였다. 그것은 시대의 목탁이 되어 늘 깨어있어야 함을 스스로에게 경계하게 하는 또 다

버렸습디다. 이 아이가 온 곳을 답변하지 못하면 이 아이마저도 물 속으로 집어 던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암두 선사는 앞뒤가 막막해졌다. 이는 ‘남전참요’ 즉 남전 선사가 고양이를 배어버린 그 일보다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잠깐. 그러자 그 아줌마는 말했다.

“내가 일곱 번째도 지음자(知音者)를 만나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도 살리지 못하겠구나” 하고는 아이를 바로 물 속에다가 던져버렸다. 물론 암두 선사의 얼굴빛은 보나비나 하얀 백지장이 되었을 것이다. 무서운 아줌마 선지식은 토끼 같은 자식마저도 남자들의 공부를 위해 과감하게 내놓았다. 그것도 하나 둘도 아니고 자그마치 일곱명이나... 조주 선사의 ‘남전참요’ 답변은 정신을 머리에 이고 방인을 나가버린 것이다. 그렇다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일곱번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 대답은 각자에게 맡겨야겠지.

■원형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 지 조 화 벽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호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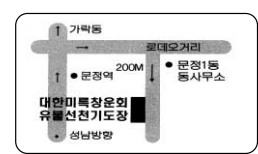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童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인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한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 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광력에너지, 생양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제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인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고 지금껏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활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